

관광현황 분석 보고서

[관광일반 수행평가]

반: 번호: 이름:

I 「관광」관련 사회 이슈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하향세”

II 주제를 선택한 이유

코로나-19 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전파로 인한 인간의 삶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제이기에 선정하였음. 각 단계에 따른 단체 모임의 제한과 업장의 제한시간 규제로 인해 사람들의 외부로의 이동이 제한 되고 있는 상황임. 그에 따라 사람이 몰릴 수 밖에 없는 환경인 관광지과 관련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었기에, 관광 산업이 자연스럽게 하향 추세를 보이게 되었음. 관광을 전공하는 특성화고 학생으로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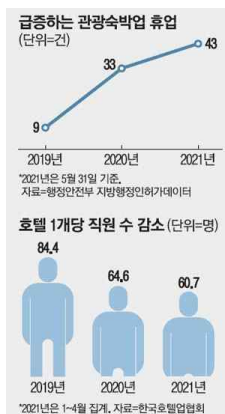
III 주제에 대한 조사자료

•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및 관광객의 증감 추세 확산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관광객들의 주요 방문 지역이었던 서울·경기 지역의 감소 추세와 반대로 강원도와 경기도 인접이 드문 지역의 경우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는 통계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었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전년보다 서울 주요 관광지를 찾는 사람은 줄어들고, 대신 캠핑 등 야외 활동을 위해 수도권 외곽을 방문한 사람은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및 관광객의 증감 추세 확산



주요 카지노 3사 전년 대비 올해 2분기 영업이익(손실) 규모

(단위: 억원)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분야의 타격을 왼쪽부터 관광숙박업의 휴업과 임직원의 감소, 카지노 산업 분야의 영업 손실, 지역 축제(산천어)의 방문 인원 감소 등의 자료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음.

#1. 호텔 산업의 영향 (기사1)

호텔 업계에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 사례가 이어지는 것은 지난해부터 투숙객이 줄면서 기존 호텔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5성급 호텔마저 매각되는 초유의 상황이지만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중소·중견 업체들은 여전히 자력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충무로역 인근 'G3호텔'은 지난해 5월 완공하고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머큐어 앰배서더 서울 강남 쏘도베는 이달 말로 영업을 종료한다. 관련 통계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호텔 휴업 건수가 올해는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휴업 사례가 속출하면서 문제는 고용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호텔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호텔 하나당 직원 수는 60.7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연평균(84.4명)보다 28%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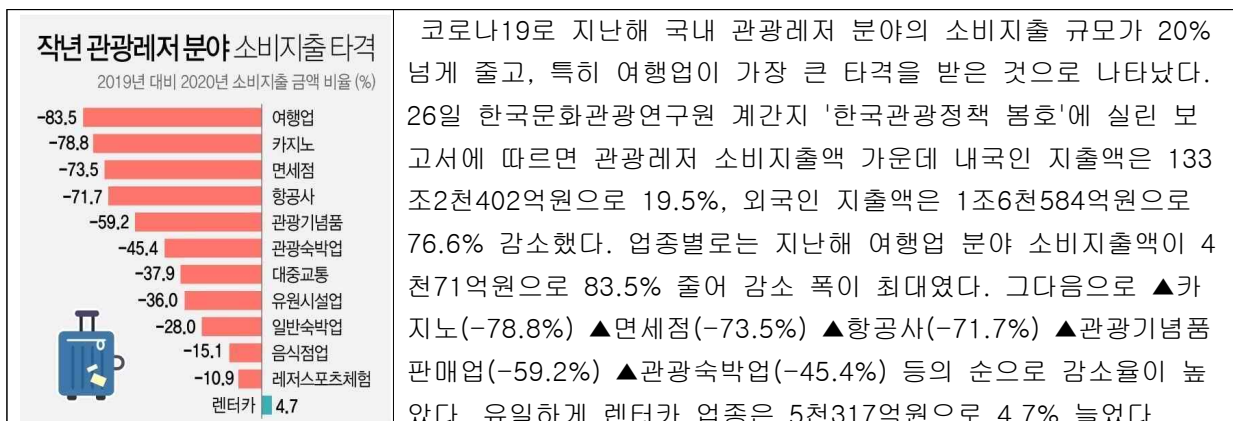
#2. 카지노 산업의 영향 (기사2)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외인 카지노 양대산맥 파라다이스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2분기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파라다이스는 445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전년 동기(47억원) 대비 적자전환했다. 매출액은 68.1% 줄어든 746억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2분기 26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GKL도 올해는 321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예견된 실적쇼크라지만 당초 시장 예상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다. 매출 근간이 되는 외국인 카지노 사업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해서다. 업종 특성 상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수요가 뒷받침 돼야 하는데, 한국을 찾는 여행수요가 곤두박질치며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실제 올해 4~6월 방문 외국인은 9만7219명으로 전년 동기(469만명) 대비 97.9% 감소했는데, 이 여파가 양사 실적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해 2분기 1조7570억원 수준이었던 파라다이스 드롭액(이용객이 칩으로 바꾼 금액)이 3630억원으로 추락했다. 총 매출액도 73% 감소한 515억원에 그쳤다. GKL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과 강북, 부산 세븐럭을 찾은 방문객도 5만8200여명에 불과했다. 지난해(46만9687명)보다 87.5% 감소한 수치다.

#3. 축제·이벤트 산업의 영향 (기사3)

강원 화천산천어축제가 이상기온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관광객 급감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달 27일 개막한 화천산천어축제장을 지금까지 찾은 관광객은 13일 현재 42만49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7만9132명보다 무려 115만4162명이 감소했다. 이는 겨우 4분의 1 수준으로 개막 2회째인 2004년 이래 14년만에 최저치이다. 이같은 관광객 급감현상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겨울장맛비로 얼음이 얼지 않아 운영에 차질을 빚는데다 옆친데 뒤통수격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외국인 방문객은 4년 연속 10만명을 돌파하며 13일 현재 10만625명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및 관광객의 증감 추세 확산



IV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관광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변화와 공급·수요의 감소는 크게 와닿을 수 밖에 없는 큰 주제이다.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관광산업에서의 피해 정도에 대해서 와닿을 수 있었고,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스크를 쓰고 어디를 돌아다니는게 민폐인 현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어딘가를 관광 한다는게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관광 분야가 반등할 것이라는 세계 경제의 성장 기대에 따라 관광 산업에서도 기존의 시설과 시스템에 대한 보완 및 업그레이드로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V 주제의 미래 방향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하향세”라는 주제의 미래 방향성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각종 시도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고민과 여러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며, 관광을 각 시의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은 위에 있는 포스팅처럼 여러 방면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의 대다수도 관광과 관련된 활동적인 것들이 대다수였으며 이에 따라 잠재적인 수요의 측정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